



18일 오전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광주시 자치구 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수정안' 처리에 강력 반발하는 진보 정당 관계자가 경찰에 의해 끌려 나가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호남기업 손 본다는데...”

한나라 이종구의원 의혹 제기...백용호 국세청장 “그런 일 없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의도적으로 호남기업들을 괴롭히는 것이냐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돼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업무 보고에서 “최근 시중에 국세청이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재미를 본 호남기업들을 손 본다는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왜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달라”고 백용호 국세청장에게 요구했다.

그는 또 “호남 인맥들을 국세청이 본격적으로 쫓아내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국세청이 홍보 관련 부서 등을 활용해서 국민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들고 나섰고, 이 의원은 호남기업 세무조사와 관련, “지역에서는 ‘호남 지역 기업체 죽이기 작전’이라는 식의 해석도 나오는 것이 사실”이라며 “아무리 국세청이 순수한 의도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지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지방국세청을 통해서라도 오해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백용호 국세청장은 “특정지역과 특정기업에 세무조사 행정을 집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세무조사를 당하는 기업 입장에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는 있지만 그런 일(정치적 의도)은 결코 없었고 앞으로 일어날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시장에서 세무조사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것은 지난해 상반기 유예했던 것을 하반기에 집중했고 올해 세무조사 선정건수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호남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건설사인 K.H. 또 다른 H사 등에 대한 교차 세무조사 및 주식변동조사에 착수,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pkp@kwangju.co.kr

## “당이 시켜서...”

민주당 독점 광주시의회, 경찰 동원 '2인 선거구제' 강행 처리

개원 19년만에 첫 경호권 발동

광주시의회가 18일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광주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경찰력까지 동원해 통과시켰다.

시민·사회단체, 진보 정당의 강한

반대에도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는 광주시의회가 개원 이래 처음으로 경호권까지 동원하는 무리수를 두면서 광주시내 자치구의 일당 독식 등 상당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특히 이날 광주시의회의 2인 선거구제 분할은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진 데다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압력'도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1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시 자치구 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수정안'을 강박원 의장 직권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회원들의 반발에도 재차 의원 17명 중 14명이 본회의에 참석해 찬성 12명, 기권 2명으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강 의장 등 시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장 진입을 막는 시민사회 단체 회원 등을 끌어내기 위해 '경호권'을 발

동했다. 광주시의회의 경호권 발동은 지난 1991년 개원 이후 19년 만에 처음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민단체, 진보정당 관계자들이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시의회는 강행 처리 배경에는 민주당이 광주시내 모든 기초의회를 독식하겠다는 포석이 깔려있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 일부 의원들은 '당론' 때문이라고 공공연히 말해왔고, 안건 강행 처리 이후 지역 국회의원들로부터 '격려' 전화를 받았다고 밝힌 시의원들도 상당수였다. A시의원은 “국회의원들과 민주당의 뜻인데 이를 어떻게 거스르겠느냐”고 말했다. B시의원은 “안건 처리 이후 고생했다는 전화를 모 국회의원에게 받았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이날 조례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4인 선거구였던 동구 나 선거구(지산 1·2동, 서남동, 학동, 학운동, 지원 1·2동)가 2곳으로 분할돼 2인 선거구로 변하는 등 모두 6곳의 4인 선거구가 사라지게 됐다. 애초 광

주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4인 선거구 6곳, 2인 선거구 4곳, 3인 선거구 9곳 등 총 19개 선거구 59명의 의원 정수를 시의회에 제시했지만, 민주당 일색인 시의회가 자당 출신 기초의원 배출 가능성이 크다는 '당론'에 따라 2인 선거구로 조개기를 강행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는 선거구당 기초의원을 2~4명씩 뽑을 수 있는 제도다. 따라서 2인 선거구에서는 한 선거구당 1, 2위 2명을, 4인 선거구에서는 한 선거구당 1~4위까지 4명의 기초의원을 뽑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수 정당의 후보는 민주당 뒷받침인 광주에서 2인 선거구보다는 4인 선거구가 유리하다.

희망과 대안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구제 분할에 앞장선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행일·정찬용 광주시장 예비후보, 민노당, 국민참여당 관계자 등도 이날 조례안 파행 처리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구청장·시장·광역의원

오늘부터 예비후보 등록

주말 선거열기 고조

6·2 지방선거가 100여 일가량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후보 등록, 각 정당 경선방법 결정 등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19일부터 전남지역 시장·광주 구청장·광역의원 등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광주·전남 광역단체장과 자치단체장의 공

천방법, 지역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안을 이번 주말께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각 후보들 간 경쟁체제가 본격화 된다. <관련기사 3·4·5면>

시장·구청장 등의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이날 이형석 전 청와대 비서관, 남평오 전 보건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 김종오 김대중 평화센터 자문위원 등도 각각 북구구청장, 광산구청장 전남 광역단체장과 자치단체장의 공

의 광역의원 입지자들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칠 계획이어서 주말 거리가 선거열기로 뜨거워 전망이다. 전갑길 광산구청장도 구청장직 사퇴와 함께 광주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한다.

하지만, 교육의원은 18일 국회에서 뒤늦게 지방교육자치법이 처리됨에 따라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나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을 하고 불법 선거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선거부정감시단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 및 조사 등 선거부정 감시활동을 하게 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변호사 개업인사**

어느 하루에 광주지방법원 형사부 담당 형사 및 선거관(안) 부장관(안) 앞으로 02배년(안)의 법관(안)을 거쳐 변호사로 개업(안)을 하신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개업(안)을 하신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개업(안)을 하신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개업(안)을 하신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변호사 구길선 출임**

입주(안) : 2010. 2. 12  
입주(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12-2번길 22-1호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12-2번길 22-1호)  
대표전화 : 062-222-5205  
개업(안) : 2010. 3. 17(수) 17시~30시

## 모태범 銀 추가



한국 빙상의 주역으로 우뚝 선 모태범(21·한국체대)이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에서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역사에 또 하나의 기록을 남겼다.

<관련기사 18면>

지난 16일(한국시간)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500m에서 금메달을 따냈던 모태범은 18일 열린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1,000m에서도 은메달을 추가했다.

'흑색탄환' 사니 데이비스(미국·1분08초94)에 불과 0.18초 뒤지는 좋은 성적으로 2위를 차지한 것이다.

이로써 모태범은 한국 선수로는 동계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에서 2개의 메달을 따낸 선수로 이름을 남겼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파인비치골프링크스에서 꿈과 열정을 함께 할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직원 모집**

구분	인원	나이	학력
경영지원	총무	20대	고졸 이상
	인사	20대	고졸 이상
골프 코치	코치	20대	고졸 이상
	코치	20대	고졸 이상
서비스	서비스	20대	고졸 이상
	서비스	20대	고졸 이상
기타	기타	20대	고졸 이상
	기타	20대	고졸 이상

모집처: 파인비치골프링크스 (Pine Beach Golf Links & Country Club)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12-2번길 22-1호  
문의처: 062-222-5205